

전선의 역사가들 - 6·25전쟁기 미 육군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찬 활동

정 용 욱*

1. 머리말
2. 제1~8군사지대의 편성과 한국 부임(1950.10~1951.3)
3. 제1~8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1951.2~1953.1)
4. 8086부대로 통합과 이후 활동(1953.1~1954.1)
5. 맺음말

1. 머리말

“미 극동육군 8086부대 군사지대는 1953년 1월 24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작전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에 표창한다. 극동에서 미 육군 편사 계획의 책임을 맡아서 지대 요원들은 전선의 진지를 누비고 다녔고, 독특한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야전에서 군사 집필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완수했다. 혹한과 실제 전투상황에서 작전해야 하는 위험에도

* 서울대 국사학과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전 역사기록에 포함되거나 각종 군사학교와 훈련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사후보고서, 전투증언과 전술작전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군사지대의 모범적 기여와 군인정신은 요원들의 개인적·집단적 공로를 반영하며 군복무라는 존중받는 전통을 유지시키고, 세계 평화를 향한 국제연합의 전진을 촉진시켰다.”¹⁾

위의 인용은 미 극동육군 군사지대(US Army Forces Far East, Military History Detachment, 이하 ‘군사지대’)에 대한 공훈부대(Meritorious Unit Commendation) 표창사다. 이 부대는 처음에는 제1지대부터 제8지대까지 8개의 지대로 편성되었으며, 1953년 1월 8086부대라는 하나의 지대로 통합되었다. 이 표창사는 군사지대가 1950년 10월 미국 본토에서 처음 편성된 후 1954년 1월 표창을 받은 시기까지 이 부대가 수행한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6·25전쟁사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 특히 전문 연구자들은 제임스 슈나벨의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로이 애플만의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월터 허미즈의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빌리 모스만의 *Ebb and Flow* 가운데 한두 권을 들춰본 적이 있을 것이다.²⁾ 이 책들은 6·25

1) Hq. AFFE General Order No. 23, “The Meritorious Unit Commendation,” 1954.1.29. 이 표창사는 Project MHD-35,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 Prepared by 8086 Army Unit (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APO 301, 1954.6.25. Written by 1st Lt Donald P. Grand & Cpl Richard A. Hill로부터 재인용. 이하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는 「연대기」로 약칭. 이 자료의 출처는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Box 28

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June–November 1950*,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66. 이 책들의 분석 대상 시기는 슈나벨과 애플만의 책이 1950년 6월에

전쟁 연구자들이 연구의 초입에서 일차적으로 의지해야 할 입문서 또는 미국 측 자료 상황을 알려주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 책들은 워싱턴의 정책에서부터 미 극동군·유엔군 사령부의 전략, 작전, 병참은 물론 미 8군과 전선의 전술부대의 작전 수행에 이르기까지 6·25전쟁 당시 미국 정부와 군부, 특히 육군의 활동 전반을 보여준다. 또 이 책들은 꽤나 치밀하게 사실을 고증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다. 필자들은 지휘현장 또는 작전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해당 작전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다.

위 네 책은 미 육군의 공식 한국전사로서 그 발행 주체는 미 육군 군사감실이었고, 196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각각 출간되었다. 이 책들 가운데 앞의 세 권은 이미 1950년대 후반 또는 1960년대 중반에 집필을 완료했지만 검열과 감수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미 육군 군사감실이 펴낸 최초의 6·25전쟁 관련 서적은 위의 책들이 아니고 *Korea 1950*이라는 책이다.³⁾ 이 책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병들과 제대군인들에게 그들이 수행한 전투와 전장에서 겪은 일들을 설명해준다는 차원에서 급히 만든 일종의 화보집이었고, 그런 면에서 일종의 홍보용 출판물이었다. 이 책을 제외한다면 미 육군 군사감실이

서 11월 사이, 허미즈의 책이 1951년 7월부터 1953년 7월까지다. 이렇게 보면 1950년 11월부터 이듬해인 1951년 7월까지가 공백인 셈인데, 이후 전쟁발발 40주년이 되는 1990년에 출간된 Billy Mossman, *Ebb and Flow*,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가 그 공백을 메꾸었다. 저자 빌리 모스만은 이 글에서 다룬 군사지대의 지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책들은 모두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미 육군 군사감실 編, 로이 E. 애플만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1집: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陸軍本部, 1963.

미 육군 군사감실 編, 윌터 G. 헤어메스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陸軍本部, 1967.

미 육군 군사감실 編, 제임스 F. 슈나벨 著; 陸軍本部 譯刊, 『유엔군전사 제3집: 정책과 지도』, 陸軍本部, 1973.

빌리 모스만 저·백선진 역, 『밀물과 썰물』,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3) Center of Military History, *Korea 1950*,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53.

편찬에 직접 관계한 공식전사로서 최초로 출간된 책은 휴전 직후인 1954년 간행된 러셀 구겔러의 *Combat Actions in Korea: Infantry, Artillery, Armor*였다.⁴⁾ 이 책은 미 육군이 편찬한 제2차 세계대전사의 중요한 구성부분 중 하나였던 “Americans in Action”을 본따서 만들었고,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6·25전쟁 중 미군의 대표적 소부대 활동을 병과별로 다룬 전투사였다. 이 책은 특히 실전경험이 없는 초급장교들에게 경험과 교훈을 전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편찬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구겔러로 되어 있지만 그는 이 책의 편자에 가까웠고, 이 책 각 장의 집필자, 또는 초고와 자료 제공자들은 전선을 누비고 다닌 군사지대 군사관들이었다. 즉, 미 육군 최초의 6·25전쟁 공식전사는 군사지대의 활동이 없었으면 출간될 수 없었다.

미 육군은 6·25전쟁 발발 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매일 매일의 전황을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이러한 자료 수집과 역사 기록 활동을 전체 6·25전쟁 역사 편찬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야심 찬 기획을 마련했다.⁵⁾ 미 육군은 이러한 한국전사 편찬 계획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미 육군 군사감실(Office of Center for Military History)→극동군·유엔군 군사과(Military History Section, GHQ FNC/UNC)→미 8군 군사과(Military History Section, 8th Army)→군사지대(Military History Detachments)로 이어지는 지휘·통제체계를 활용했다. 이 글에서 분석할 군사지대는 이러한 조직체계의 말단에서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자료 생산과 수집, 정리를

4) Russel A. Gugeler, *Combat Actions in Korea : Infantry, Artillery, Armor*, Washington, D.C.: Combat Forces, 1954. 이 책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번역되었다.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 A. 구겔러 著·金鎭宇 譯, 『(韓國에서의)小部隊戰鬪』, 兵學社, 1977(영한대역); R. A. 구겔러 著·강창구 譯, 『(韓國에서의)步·砲·機甲의)小部隊戰鬪』, 兵學社, 1990; 러셀 A. 구겔러 저·조상근 편역, 『(한국전쟁에서의)소부대 전투기술』, BG북갤러리, 2008.

5)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Command & Staff Section Reports, 1947-52, Entry A1-141, Box 8, “Plan for History of Korean Conflict”, 1950.8

위해서 활동했다.

이 글은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사지대의 편성에서부터 해체에 이르는 조직 변화와 그 활동 전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지대의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만큼 이 글은 무엇보다 사실 이해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둘 것이다.

2. 제1~8군사지대의 편성과 한국 부임(1950.10~1951.3)

6·25전쟁에서 미 육군의 첫 전투가 7월 5일 스미스 특별부대의 오산 전투였고, 미군의 참전은 당장 미군에게 한국전선에서 미군 활동의 기록 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군사지대의 편성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전선의 미 8군 사령부 군사과였다. 1950년 8월 29일, 8군 군사과는 2개의 B형 역사팀과 3개의 C형 역사팀을 파견해줄 것을 극동군사령부 군사과를 통해 군사감실에 요청했다. 더불어 전쟁발발 이후 확대된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2명의 소령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극동군 군사과도 8군 군사과의 군사지대 파견과 인력 증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군사감실은 8군 군사과와 극동군 군사과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서 군사지대의 편성을 서둘렀고, 마침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미국에 주둔하던 일부 군, 군단, 사단 사령부에 제1지대부터 제8지대까지 8개 지대가 창설되었다. 유형별로 A형 역사팀 1개, B형 역사팀 3개, C형 역사팀 4개가 창설되었다.⁶⁾

6)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History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A1-140, Box 2, IOM(Inter-Office Memorandum), From Dr. Prange to Gen Willoughby, Sub: Eighth Army Historical Program, 1951.2.10 중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윌러비 장군과 군사감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지대를 A, B, C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했고, 6·25전쟁에 동원한 8개 군사지대도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했다. A형은 다른 군사지대들의 일종의 관리본부 격이었고, 중령 1명, 사병 3명, 수석 서무병 1명, 차량관리 하사관 1명, 속기사(stenographer) 1명으로 구성되었다. B형은 군단과 병참사령부에서 연락과 조사업무를 담당했고, 소령 1명, 사병 2명으로 구성되었다. C형은 사단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대위 1명, 사병 2명으로 구성되었다.⁷⁾ 역사팀 A, B, C는 편성 규모는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로 임무와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인원 구성도 편제상의 규정에 불과했고, 한국에 부임한 8개 지대의 초대 지대장은 대위 아니면 중위가 많았다. 그 가운데 2차대전에 군사관으로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처음에 1지대장을 맡았으나 한국에 도착한 후 7지대장으로 부임한 윌리엄 폭스(William J. Fox) 대위 1명 뿐이었다. 지대장들은 민간인 시절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거나 또는 부전공했던 학력이 있고, 사회에서는 기자, 통신원 경력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병들은 대부분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병이었다.

〈표 1〉을 통해 먼저 각 지대의 편성에서 한국 부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알아보자.

8개 군사지대 가운데 제일 먼저 편성된 지대는 제1, 2, 6 세 개 지대였고, 편성일자는 1950년 10월 9일이었다. 제5지대의 편성 일자는 1950년 10월 1일로 일자상 제일 먼저 편성되었지만 거의 두 달 동안 서류상의 조직에 불과했고, 1950년 12월이 되어서야 지대장이 부임했다. 제7, 8지대는 1950년 11월 15일 편성되었고, 가장 늦게 편성되었다.

실 워드 장군의 1950년 8월 29일, 9월 25일, 12월 5일자 교신 전문

7) 「연대기」, p. iv

〈표 1〉 제1~8지대의 편성과 한국 배속까지의 활동

지대 (형태)	초대 지대장	편성일, 편성지	편성 직후 훈련 내용	일본 도착일	일본에서 훈련과 활동	한국 도착일
1(A)	Capt. William J. Fox	1950.10.9, Fort Bragg, N. Carolina	5군단 1950년 지휘보고서 편찬 지원, 차년도 지휘보 고서를 위한 참모부서와 예하 부대의 지휘보고서 제출 절차 비망록 편찬	1951. 5.22	8군 군사과가 진행 중인 한국전사 편사에 대한 준비 교육	1951. 6.12
2(B)	Capt. William J. Fox, 이후 Pierce W. Briscoe (1951.3.12)	1950.10.9, Fort Bragg, N. Carolina	위와 같음	1951. 5.22	위와 같음	1951. 6.12
3(B)	1st Lt. Martin Blumenson	1950.10.12, Fort Hood, Texas		1951. 1.16	요코하마와 오사가 육군병원 에서 부상자들 사후증언 채 록. 1월 7~20일 원주에서 작전한 2사단 부상병 대상.	1951. 3.8
4(C)	Capt. Edward C. Williamson	1950.10.11, Camp Pickett, Virginia.		1951. 1.16	요코하마와 도쿄 육군병원 에서 부상자들 사후증언 채록. 2사단의 원주 방어 전, 반격전 관련.	1951. 3.8
5(C)	Lt. Harry J. Middleton Jr.(1950.12. 12 부임)	1950.10.1, Fort Campbell, Kentucky	거의 두 달 동안 서류상의 조직에 불과	1951. 2.13	4개월 간 8군 군사관의 일 원으로 인터뷰와 지휘보고 서(인력 부분) 작성에 종사. 제천 전투 AAR 작성을 위 해 요코하마, 도쿄 병원에 서 부상병 증언 채록.	1951. 6.12
6(C)	1st Lt. William D. Magnes (1950.12.12 부임)	1950.10.9, Camp Atterbury, Indiana	기지 일지, Camp Atterbury 소개 전단, 28사단 훈련일지 작성에 종사.	1951. 2.13	8군 군사관으로서 증언 채록법, 사후보고서 작성법, 지휘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적 지식을 교육 받음. 제천 전투 AAR 작성을 위해 요코하마, 도쿄 병원 에서 부상병 증언 채록. 8군 지휘 보고서 군수 부분 집필.	1951. 7.21
7(B)	Capt. William T. Crawford	1950.11.15, Fort Meade, Maryland	예비군과 해외 파송 2군 요원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1951. 1.16	일본에서 교육-훈련	1951. 2.15
8(C)	1st Lt. John Mewha	1950.11.15, Fort Meade, Maryland	예비군과 해외 파송 2군 요원들의 준비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연구	1951. 1.16	요코하마와 도쿄 육군병 원에서 부상자들로부터 사후증언 채록	1951. 3.12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군사지대는 195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모두 미국에서 편성되었지만 1, 2지대는 편성 이후 지대장 임명까지 1개월, 6지대는 2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대부분의 지대가 11월이 되어서야 지대장이 배치되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대 편성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자질 있는 군사관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개 지대는 편성 후 8군사령부 군사과가 주둔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오리엔테이션과 훈련을 받았다. 각 군사지대는 1951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대별로 1개월에서 4개월간 재차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부임지인 한국에는 2월에서 7월 사이에 도착했다. 1차로 2월과 3월에 걸쳐 3, 4, 7, 8지대가 부임했고, 2차로 6월과 7월에 1, 2, 5, 6지대가 부임했다. 한국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2월에 도착한 7지대였고, 가장 나중에 도착한 것은 7월에 도착한 6지대였다. 원래 제1군사지대가 여타 군사지대들을 감독하고 그들 사이의 업무를 조정하는 일을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 1951년 6월이나 되어서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임시로 미 8군 임시군사지대가 편성되어 그들을 대신하여 감독과 조정 임무를 수행했다. 미 8군 임시군사지대는 한국에 부임한 다른 지대들로부터 인력을 충당했다. 제1군사지대가 한국에 도착한 뒤에 1지대는 미 8군 임시군사지대로부터 업무를 인계 받았고, 이 부대는 1951년 말부터 1953년 1월 해산할 때까지 서울에서 작전을 수행했다.⁸⁾

8개 지대는 애초 미국 본토에 설치된 직후 소속부대인 군, 군단 또는 사단 사령부에서 지휘보고서 편찬, 소개 책자 발간, 훈련 일지 작성 등 해당 부대의 일상 업무에 종사했다. 일본에서는 8군 사령부 군사과에 배속되어 지대별로 지휘보고서 작성 훈련, 한국전선으로부터 후송된 부상병을 대상으로 한 사후증언 작성, 인터뷰 훈련,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준비와 교육 등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이 시기 극동군 사령부나 8군사령부, 또 전선의 전술부대 지휘부에 양질의 지휘

8) 「연대기」, p.1.

보고서 작성이 계속 강조되었고, 각급부대 사령부에게 지휘보고서 편찬은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 일본에서 각 지대의 훈련내용은 각 지대 군사관들에게도 지휘보고서 작성과 편찬 지원업무가 무척 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에서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이 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증언 인터뷰(AAI)의 확보였다. 이것은 이 시기 각 지대 훈련의 중점 사항 가운데 다른 하나가 사후보고서의 작성과 편찬, 소부대 전투를 정리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3, 4지대는 2사단의 원주 방어전과 반격전 관련 증언을 채록했으며, 5, 6지대는 제천전투의 사후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언을 채록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직접 연루된 미 8군 군사과나 극동군 군사과는 물론 미 육군 역사 편찬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워싱턴의 군사감실 할 것 없이 미 육군의 역사 편찬기구가 모두 군사지대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50년 가을에 미국에서 한국 전선 파견을 목표로 8개의 군사지대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8개 지대가 한국 전선에 투입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렸다. 대체로 각 지대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이전 수개월 동안 상부로부터 적절한 지침을 받지 못한 채 그들의 판단 하에 임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동안 대부분 경험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었다.⁹⁾ 미 8군사령부 군사과에 배속된 1951년 초부터 한국 전선에 배치되기 이전의 시점에 각 지대는 지휘보고서 작성·정리, 부상병들로부터 사후증언 채록, 그리고 한국전사 편찬을 위한 준비와 교육 등을 통해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였다.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사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전체적인 체계가 마련되었다. 흥미 있는 것은 유엔군이 수세에 몰려 있고,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과 한창 공방을 치르고 있을 무렵인 1950년 8월에 이미 미 육군부 군사감실은 방대한 한국전사 편사 계획을 마련했고, 아울러 군사지대의 설치를 준비했다. 계획상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한국전사에 대한 전체적 구상이 군사감실 차원에서 존재했고,

9) 「연대기」, p.1

전선의 군사 관련 부서들도 이른 시기부터 군사지대의 파견을 원했지만 군사지대의 활용에 관한 구체적 방침이 처음부터 뚜렷하게 마련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또 군사감실, 전선의 군사 관련부서, 그리고 지대 간의 소통이 지대 창설 초기에 그리 원활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지대장 폭스 대위는 지대 편성 시 지대의 임무, 파견지역과 목적에 관해 군사감실로부터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폭스 대위는 사적으로 국방부 관리로부터 지대 창설 목적에 관해 들었을 뿐이고, 자비로 워싱턴을 몇 번 방문한 뒤에야 지대의 목표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폭스 대위는 수차례 워싱턴 방문 끝에 군사감실의 워드(Orlando Ward) 중장으로부터 한국전사 전체 편사계획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제2지대장에게도 전달했다.¹⁰⁾ 거기에서 자질 있는 군사관의 부족, 지대 편성과 이송 과정에서 지지부진함 등 실무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대 소속 군사관들의 전선 파견이 초기에 집행되지 않았다. 또 다른 지대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조절할 A형 지대인 제1지대가 제일 마지막에 파견됨으로써 미 8군 군사과는 그 임무를 담당할 임시군사지대를 설치해야 했다. 이와 같이 편성초기 지대의 운용은 상부와 관리기구의 구상만큼 그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제1~8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1951.2~1953.1)

8개 지대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먼저 임무를 시작한 것은 7지대였다. 1951년 2월 한국에 부임한 7지대는 처음에는 군단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10)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 392,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중 '1st Historical Detachment (Type A)' p.3

유일한 A형 지대인 1지대의 부임이 지연됨에 따라 미 8군 군사과에서 조사, 연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 7지대는 1951년 1월 1·4후퇴 시 14공병전투중대가 수행한 한강다리 파괴 작전 등 1군단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 작성, 편찬 활동을 조력했다. 지대장 윌리엄 크로포드 대위는 다른 군사지대들을 관리하고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1951년 4월 1일부로 임시로 편제한 미 8군 임시군사지대(the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의 초대 지대장을 맡았다.¹¹⁾ 이어 1951년 3월에 부임한 3, 4, 8지대는 한국에 오자마자 각각 9군단, 1군단, 10군단에 배치되었다. 각 군단에 배치된 이들 3개 지대는 사단 등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특히 이 3개 지대는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사이에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투입된 소부대들의 전투사를 집필하거나 그와 관련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작성했다.¹²⁾

제1, 2, 5, 6지대는 1951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한국에 부임했다. 제1지대는 1951년 12월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했고, 제2, 6지대는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사이에는 소부대 전투사 집필에 조력했다. 제5지대는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도 지휘관 없는 상태로 2개월을 허비했지만 1951년 6월 15일 대구에 있는 미 8군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도 지휘관 미들턴 중위만이 유일하게 정식으로 임명된 요원이었을 정도로 시종 인력 확보 및 편성과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다.¹³⁾

다음 표는 초대 지대장들의 경력을 조사한 것이다. 1951년 6월까지 한국에 도착한 7명의 지대장들의 학력,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을

11) 미 8군 역사임시지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위의 “HQ 8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isional), Historical Reports” 참고.

12) 「연대기」, pp.1~7. 또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 “Historical Reports” 참고.

13) 「연대기」, pp.7~14.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제6지대장의 경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표 2〉 초대 지대장들의 학력,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

이름(소속지대), 군사주특기, 복무기간, 연령	학력과 민간 활동경력	군 복무경력
William T. Crawford 대위(7지대, 미 8군 임시역사지대), 2421(역사편집자), 8년 6개월, 39세	- 1924~29, 뉴욕주 소재 군사학교 - 1929, 학군단, 임관자격증명서 취득(1934년 만료) - 1930, 콜게이트 대학 - 1930~33, 플로리다 마이애미 대학, 영어 전공 - 1934~40, 뉴욕 증권거래소 중개인 - 1940~42, 항공기 제작소(Aviation Plant) 직원 - 1947~49 국무부 해외청산위원회(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 필리핀군도 마닐라지부에서 근무	- 1942.10, 이병으로 입대 - 1943.9.3, 간부후보학교 졸업 후 소위 임관 - 1943~1946, 준장부관 역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유엔회의에서 복무하기도 했음. - 1947.1~1947.4, 예비역으로 소장부관 역임. - 1950년 재소집. - 1950.11, 메릴랜드 조지미드기지에서 제 7군사지대장으로 부임
Martin Blumenson 중위(3), 2421, 4년 6개월, 32세	- 1935, 뉴저지의 버나즈빌 고교 졸업 - 1939, 버크넬 대학 학사 - 1940, 同 대학 석사 - 1942, 하버드 대학 석사, 사학 전공 - 1948~50, 뉴욕 킹스포인트(Kings Point) 소재 해양대학에서 역사학 강사. 해양청(US Maritime Service) 근무 - 1950, 뉴욕 웹프스테드 소재 호프스트라 대학에서 역사학 강사 - 『토요문학비평』(Saturday Review of Literature)에 때때로 기고	- 1942.6~1946.4, 2차 대전 참전하여 복무 - 1944.12.6, 소위 임관. 미 육군 유럽전구 사령부 군사와 근무. - 1947.3~1950.12, 예비역 장교로 325 군사탐장 역임 - 1950.12, 현역 복귀, 텍사스 소재 후드기지(Fort Hood)에서 제3군사지대장으로 부임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Edward C. Williamson 대위(4), 2421, 未詳, 35세,	- 1916. 4. 26,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출생 - 1935,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 시브리즈 고교 - 1939, 플로리다 대학 학사, 학군단 소위 임관 - 1939~1941, 플로리다 밀턴 고등학교 사회과학 강사 - 1945~46, 플로리다 대학에 복학하여 석사 취득.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사과정 지원자로 선정됨. - 1948~50,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 강사, 『플로리다 수고』(Florida Manuscripts) 편집원	- 1941, 시민보호청년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근무 - 1941년 현역복귀명령을 받은 후, 1941년 8월 29일부터 1945년 9월 23일까지 8보병사단 45야전포병대대에서 복무. - 1942~1943, 오클라호마 실기지(Fort Sill)에서 야전포병통신학교를 다녔고, 同 기지에서 야전포병장교 기본과정을 마침 - 1943, 통신기지 주파수변조무선학교에서 수학 - 1943.11~1945.7, 45대대 소속 전투포병연락장교로 유럽 전구에서 복무 - 1950년 오클라호마 실기지에서 야전포병 고등과정 수료, 同年 육군부 육군역사가 학교 참가, 제4군사지대장으로 부임
John Mewha 중위(8), 2421, 9년, 34세	- 1937, 펜실바니아주 체스터 고등학교 졸업. - 1942, 징집 전까지 신용조사관 - 1946.9~1950.5,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소재 밥존스 대학에서 수학, 우등 졸업, 라디오 대본 창작 및 연출 전공, 역사학 부전공 - 1950.6, 템플 대학에 등록	- 1942~46, 4년 2개월 간 육군 복무, 그 중 7개월 간 유럽 사령부에서 해외복무. 동성훈장, 공훈메달, 중군기념청동성장 2개 - 1946.5.5, 전역 - 1950.11.3, 현역 복귀 - 1950.11.10, 제8군사지대장으로 부임

William J. Fox 대위(1), (기분)1542/ (근무)2421, 9년, 33세	- 1918.8.14, 뉴욕 브록클린 탄생 - 뉴욕 소재 성어거스틴 고등학교, 콜롬비아 대학, 랜드 사회과학대학에서 수학 - 1936~37, 뉴욕 브록클린 『데일리이글』(Daily Eagle)의 스포츠기자 및 『뉴욕아메리칸』과 『뉴욕헤럴드트리뷴』의 비상근 기자 - 1937~42, 1945~46, 뉴욕 합동통신사 특파원, 1946년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국과 테네시 멤피스 지국으로 전근했으며, 연말에는 지국장으로 부임. 미국신문조합(CIO) 현역 조합원 - 1947, 미국 남동부 남서부 통신사(UP-AP-INS)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텍사스 앨리스에서 임금협상에 참여 - 1948,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근무 - 1949, 켄터키주 루이빌(Louisville)에서 근무 - 1950, 워싱턴 디시에서 열린 17차 미국신문조합 전국대회 대표. - 1950~51, 멤피스 신문조합 조합장	- 1942. 7. 29, 소위 임관 - 1944. 2. 1, 중위 진급 - 1944. 11. 1, 대위 진급 - 1942~44, 소총부대 소대장, 중대장, 1보병사단과 29보병사단 참모장교 역임. 29사단역사 서술 - 1944~45, 유럽전구에서 전사관(combat historian)으로 복무, 교전 중과 교전 후 소부대활동연구 생산에 배속된 첫번째 장교였음. 이 보고서 중 일부는 발간됐고, 일부는 발간을 준비 중이며, 일부는 군사학교에서 활용되었음. 이 유럽전구에서 작업은 미8군이 현재 추진하는 연구의 기초가 되었음. - 2차대전 참전 기간은 1942. 8월 15일부터 1945년 12월 16일까지 40개월, 그 중유럽 전구에서 32개월간 근무 - 1950,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 1951.1.3, 21개월 간 사단급 제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현역 복귀
Pierce W. Briscoe 대위(2), (기분)2110/ (근무)2421, 8년, 33세	- 1934, 버지니아주 하이랜드 스프링스 교교 졸업 - 1942, 조지아 대학 졸업, 경영학 전공 - 플로리다 소재 밀러 베어링스(Miller Bearings) 판매원 경력 소지	- 1942.11~1946.12, 2차 대전 복무 - 1943.12.7, 소위 임관 - 1946.1~1951.2, 예비역 장교 - 1951.3, 현역 복귀, 제2군사지대장으로 부임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Harry J. Middleton Jr. 중위(5), 2421, 5년, 29세	- 1947,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언론학 학사 - 1947.9~1948.9, 뉴욕시 연합통신사(Associated Press) 기자, - 1948. 9~1950. 9, 『타임』(Time)지 뉴스 편집	- 1943.3~1946.1, 전 기간 사병으로 2차대전 참전. 대부분 텍사스 소재 미4군 홍보과에서 복무. 간부후보학교 - 1949.3.11, 예비역 장교로 소위 임관 - 1950.6, 육군부 육군역사가학교 참가 - 1950.9.15, 현역 복귀, 알라바마주 러커 기지 소재 301군수사령부 배속. - 1950.12.12, 켄터키주 캠벨 기지로 전근. 제5군사지대장 부임 - 1951.4.25, 중위 진급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별 “Historical Reports”

앞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경력이 조사된 지대장들의 군사주특기 번호는 대부분 ‘2421’이었다. 당시 미 육군 군사주특기 번호 2421은 ‘역사편집자’(historical editor)였다. 1지대장 폭스 대위와 2지대장 브리스코 대위의 기본 군사주특기는 2421이 아니었으나 근무 주특기는 어쨌든 2421이었다. 폭스 대위의 기본 군사주특기는 ‘역사가’(1542, historian)였다. 지대장들의 연령은 29세부터 39세 사이였으며, 7명의 평균연령은 33.6세였다.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었던 지대장은 1지대장 폭스 대위와 8지대장 메와 중위로 현역과 예비역을 합해서 모두 9년이었다. 복무기간이 미상인 1명을 제외한 6명의 평균 복무기간은 7년 4개월이었다. 이는 모든 지대장들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이 있음을 의미했다.

지대장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3지대장 블루멘슨 중위와 4지대장 윌리암슨 대위는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윌리암슨 대위는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이 두 사람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학을 강의한 경력이 있다. 5지대장 미들턴 중위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그와 1지대장 폭스 대위는 언론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특히 폭스 대위는 미국신문조합 전국대회 대표 중 하나로 선출된 적이 있는 베테랑 언론인이었다. 8지대장 메와 중위는 대학에서 라디오 대본 창작과 연출을 전공했고, 부전공으로 역사학을 공부했다. 7지대장 크로포드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특이하게 군사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2지대장 브리스코 대위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지대장들의 민간 활동경력 또는 직업은 증권거래소 중개인, 강사, 기자, 신용조사관, 판매원 등 다양했으나 굳이 따지자면 역사학 강사가 2인, 기자가 2인으로 이 두 가지 경력을 가진 지대장이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지대장들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했거나, 언론학 전공 또는 언론계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로포드 대위, 블루멘슨 중위, 브리스코 대위는 사병으로 징집되어서 2차대전에 참전했고, 2차대전 중에 간부후보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했다. 반면 미들턴은 2차대전 중에는 전기간 사병으로 복무했으나 종전 뒤 예비역 장교로 소위 임관했다. 윌리엄슨 대위와 폭스 대위는 장교로 2차대전에 참전했고, 메와 중위는 언제 장교가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윌리엄슨 대위는 학군단(ROTC) 출신이었다. 지대장들 가운데 2차대전 이전에 직업군인 경력이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의 지대장들이 2차대전 참전을 통해서 장교가 되었다. 2차대전 중 지대장들의 군대 내 보직은 다양했다. 6·25전쟁 이전에 군사편찬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3지대장인 블루멘스 중위와 1지대장인 폭스 대위였다. 그러나 블루멘스 중위는 2차대전 종전 후에 예비역 장교로 군사탐장을 역임했고, 2차대전 중 전사 편찬 경험이 있는 지대장은 1지대장 폭스 대위 뿐이었다. 특히 폭스 대위는 1944~45년, 유럽전구에서 전사관(combat historian)으로 복무했고, 소부대 활동 연구에 배치된 첫 번째 장교였다. 지대장들의 군 복무경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1명을 제외한 모든 지대장들이 1950년 6월 육군부에서 주최한 미 육군 군사관학교(School for Army Historian)에서 단기 연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 시점은 지대장들이 현역으로 복귀하기 이전이었고, 모두 예비역 장교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지대의 한국 부임 후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 표는 각 지대의 역대 지휘관과 주요 활동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8개 군사지대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지대별 활동 상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시기별로 활동의 초점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유용하다. 1차로 한국에 부임한 제3, 4, 7, 8지대만이 활동하던 1951년 7월 이전에 이 4개 지대는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에 주력했다. 이 시기 지휘부는 8군 임시군사지대였다. 3지대는 9군단, 4지대는 1군단, 8지대는 10군단에 각각 배속되어 예하 사단 이하 각급 부대들의 작전 중 또는 작전 후 사후보고서, 사후증언을 작성했다. 이 시기에는 미 8군 사령부에 배속되어 8군 임시군사지대 역할을 맡았던 7지대도 1군단 예하 부대들의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에 조력했다.

〈표 3〉 제1~8지대의 주요 활동(1951.2~1953.1)

지대 (형태)	역대 지휘관	파견 부대	주요 활동
7(B)	Capt. William T. Crawford (1950. 11. 15) Capt. William J. Fox (1951.6.17) 1st Lt Michael Dopudja (1952.11.23)	8군 사령부	- 8군 군사과에서 조사, 연락 업무 - 1군단 예하부대의 사후보고서(AAR) 작성, 편찬 - 1952년 초 클램업 작전(Operation Clam Up) 편찬 - 1951.9.14, 서울의 법원 건물로 근무지 이동 - 1952년 5월에 이르러 더 이상 인력 보충이 되지 않음
3(B)	1st Lt Martin Blumenson (1950.10.12) Major Billy C. Mossman (1952.4)	9군단	- 1951. 12~1952. 3, 사단 내 소부대 전투에 집중. 제24사단 중심으로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 집필 - 지대 해체 직전인 1952년 12월까지 모스만 소령은 "미 8군 선전 작전", "야전군 활성화를 위한 기지로서 병참관구 조직"이라는 논문 작성
4(C)	Capt Edward C. Williamson(1950.10.11) 2nd Lt Joseph J. Comps	1군단	- 1951.9.14, 서울의 법원 건물로 근무지 이동 - 1951.12~1952.3,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관련된 소부대 전투사 서술. - 1952.3, 윌리엄슨 소령은 "클램업 작전" 편찬 지원
8(C)	1st Lt. John Mewha (1950.11.15) 2nd Lt Joseph P. Fields (1952.11.25)	10군 단	- 1951.12~1952.3,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 작성 - 매와 중위가 1952년 3월 14일 떠날 때까지 인력보충이 되지 않음
1(A)	Capt. William J. Fox (1950.10.9) Capt William T. Crawford Jr. (1951.6.17) Lt Col Arthur S. Daley	8군 사령부 군사과	- 1951.12.1,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 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
2(B)	Major Pierce W. Briscoe (1951.6.17) Major William S. Mullins (1952.12.3)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1951.12~1952.3, 브리스코 대위가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사 편찬을 조력. - 의무 장교 멀린스 소령이 한국에서 의무 활동에 관한 논문을 작성. 그의 첫 임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인공신장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제 7군사지대의 도무자 중위가 촬영을 지원.
5(C)	Lt. Harry J. Middleton Jr. (1950. 12. 12) 2nd Lt Bevin R. Alexander (1951. 6. 17) 1st Lt Robert E. Whedon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미 8군 임시군사지대 소속으로 한국에서 면담 팀으로서 임무 수행
6(C)	1st Lt. William D. Magnes (1950.12.12) Capt Billy C. Mossman (1951.8.1) 2nd Lt Samuel M. Kind	미 8군 임시군 사지대	- 1951. 9. 11, 서울의 법원 건물로 사무실과 근무지 이동 - 1951. 12~1952. 3, 사단의 소부대전투 활동 집필 - 모스만 대위는 1952년 봄, 클램업 작전 편찬작업을 조력

출전: 「연대기」;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es 392, 394의 각 지대 별 "Historical Reports"

나머지 4개 지대가 모두 한국에 부임한 1951년 7월 이후에도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작성 작업은 계속되었다. 2차로 한국에 부임한 지대들 가운데 1지대는 8군 사령부에 배속되었고, 나머지 2, 5, 6지대는 8군 임시군사지대에 배속되었다.

한편 8개 지대는 8월 말부터는 소부대 활동, 특히 근무부대(small service unit) 활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전선이 고착되고, 이 무렵부터 전선의 지대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모든 지대들이 미 8군 전선사령부가 위치한 서울의 법원 건물로 사무실과 근무지를 옮겼다. 대부분의 지대들이 9월에 서울로 옮겨왔다. 또 9월부터 미 8군 군사과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연구논문(Monograph) 집필을 부분적으로 지대에 맡기기 시작했다. 8월 말에 소부대 활동 연구와 관련해서 군사지대가 예상한 군사관들의 병종별 담당영역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¹⁴⁾

Engineer Units in Action	메와(Mewha) 중위
Medical Units in Action	블루멘슨(Blumenson) 중위
Signal Units in Action	브리스코(Briscoe) 대위
Ordnance Units in Action	윌리엄슨(Williamson) 대위
Chemical Units in Action	폭스(Fox) 대위
Quartermaster Units in Action	알렉산더(Alexander) 중위
Transportations Units in Action	모스만(Mossman) 대위

14)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Military History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Entry A1-140, Box 1, Eighth Army Historical Service Detachment(Prov), "Coverage of Small Units in Action," by Harold W. Brown, Lt Col. Commanding, 1951.8.29; Box 2, Memo for: Chief of Staff, GHQ FEC, "Preparation of Monograph by EUSAK," 1951.9.25; Box 2, "Letter from Col Hartman to Gen Ward", 1951.12.31

1951년 12월 1일 제1지대가 미 8군 임시군사지대의 기능을 인수하여 주한 군사지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군사지대의 임무는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 작성 외에 소부대 활동 연구, 전투사(Combat Narrative) 집필, 연구논문(Monograph) 작성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에 걸쳐 여러 지대가 ‘단장의 능선’과 ‘피의 능선’ 전투 활동 집필 및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에 매진하는 등 소부대 활동 연구와 전투사 집필에 힘을 쏟았다. 전황이 정돈상태로 들어간 이후 전선 고착이라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후적인 자료 수집 외에 전술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작전을 기록하고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소부대 활동 연구와 전투사 집필이 강조되었다. 소부대 활동 연구는 기록의 생산과 보존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젊은 장교들에게 전술적 교훈을 제공한다는 실용적 의미가 강조되었고, 기획과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 시기에 다루어진 주제는 정찰 연구, 전선에서 겨울철 경계 근무 방식 등이었고, ‘단장의 능선’, ‘피의 능선’ ‘철의 삼각지대’ 등 진지전 단계의 주요 전투 기록 편찬이 강조되었다.

각 지대의 위와 같은 활동은 8086부대가 창설되어 8개 지대가 하나의 부대로 통합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8지대의 경우 지대장 메와 중위가 1952년 3월 임지를 떠날 때까지 인력 보충이 되지 않아 5월이 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8지대의 예에서 보듯이 1952년에 들어 각 지대는 교체 인원을 제때에 보충하지 못하는 등 유능한 군사관을 구하지 못한 채 계속 지대의 유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휴전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미 8군 군사과는 지대의 단계적 철수를 예상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대의 조직적 개편을 준비해야 할 사정에 봉착했고, 미 8군 군사과는 군사지대를 완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개점휴업 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¹⁵⁾

15) 「연대기」 pp.7~8.

4. 8086부대로 통합과 이후 활동(1953.1~1954.1)

8086부대는 1951년부터 한국에서 활동 중이던 8개 군사지대의 활동을 통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부대의 안정적 관리와 인력 절감을 위해서 8개 지대를 하나의 부대로 통합한 것이다. 8086부대는 미 극동육군(AFFE) 사령부 지원부대(Headquarters and Service Command) 일 반명령 6호에 의해 1953년 1월 24일자로 창설됐고, 미 극동육군 군사과 장(Chief, Military History Section)의 통제를 받았으며, 미 8군에 배속되었다. 미 8군 특수병력사령부(Eighth Army Special Troops)가 행정 및 군수지원을 담당했다. 8086부대로의 통합은 기능과 임무에서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기보다 지대 인력의 감소 등 운영상의 문제와 전선 고착이라는 전황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기능과 임무의 부분적 변화를 반영했다. 1952년 내내 인원 부족으로 시달리던 각 지대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선의 고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휴전협상이 진행되던 상태에서 주한 군사지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활동 목표와 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¹⁶⁾ 어쨌든 군사지대는 미 8군의 지휘통제로부터 극동육군의 지휘 통제 하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활동은 극동육군 차원의 편사 계획과의 연관성이 강화되었다.

8086부대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 장비, 보급품 등을 8개 지대로부터 획득했다. 부대 인원 편성을 요약하면 초대 부대장은 아더 데일리(Arthur S. Daley) 중령, 부부대장은 데이비드 레이나(David J. Reina) 중령이었고, 군사관은 빌리 모스만(Billy C. Mossman) 소령(보급관, 차량장교 겸보)부터 윌리엄 멀린스(William S. Mullins) 소령, 마이클 도푸자(Michael Dopudja) 중위(사진담당), 로버트 위든(Robert E. Whedon) 중위(우편장교 겸보), 사무엘 카인드(Samuel M. Kind) 소위, 조셉 콤프(Joseph J. Comps) 소위까지 모두 6명

16) 「연대기」 p.17.

이었다.¹⁷⁾ 이 가운데 모스만 소령은 1951년 8월 6지대장으로 군사편찬 업무를 시작했고, 군사관들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기간이 가장 길었던 만큼 군사관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했다. 멀린스 소령은 1952년 12월 3일 부임했고, ‘한국 전역에서 의무대 활동’이라는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었다.¹⁸⁾ 도푸자 중위는 1952년 11월 23일 7지대장으로 부임했고, 위든 중위, 카인드 소위, 콤스 소위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5, 6, 4지대장으로 부임했다.

인력 부족 현상은 8086부대 창설 이후에도 별로 개선될 기미가 없었다. 부대의 첫 번째 상황보고서는 조만간 서너 명의 장교들이 전역하면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주특기 2421(역사편 집자)이 부족하면 만족할만한 군사적 경험을 쌓은 장교, 가능하면 병과학교 과정을 마쳤거나, 사실적 서사나 설명을 위한 글쓰기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자, 예컨대 기자, 교사, 연구자, 변호사, 대학원생’이라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¹⁹⁾ 초대 부대장이었던 데일리 중령을 대신하여 1953년 5월 29일 웬델 로켓(Wendell W. Lockett) 소령이 잠시 부대장을 맡았고, 이어서 1953년 6월 27일 토마스 맥크라켄(Thomas E. McCracken) 중령이 부대장으로 취임했다.²⁰⁾

새로 창설된 8086부대의 임무는 “야전에서 작전을 수행중인 조직들에 의해 기록된 사건들에 관해서 사실적 설명을 보충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육군부(DA)와 극동군사령부(FEC)의 군사계획을 지원하는 것”이었다.²¹⁾ 이 임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8086부대는 지휘관,

17) 「연대기」 pp.17~18.

18)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Unit Histories, 1940~1967, Entry UD 37042, Box 398, “Summary of Historical Detachment Activities for December”, prepared by 1st Historical Detachment, 1953.1.4.

19)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Monthly Status Report” No.1,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1.31.

20) 「연대기」 p.21.

21) 앞의 “Monthly Status Report”, No.1,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1.31.

참모 및 여타 인원과의 면접을 통해 기록들을 보충하여 사실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사후보고서와 역사, 그리고 연구논문을 준비했다. 부대 창설 후 8086부대는 그 이전에 완성된 보고서들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미 8군 사령부의 특별과제와 극동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FEC/UNC) 차원의 작전으로 과제를 나누어 수행했다. 그리고 부대 창설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제는 ‘MHD-일련번호’로 새로운 식별번호를 붙여나갔다.

1953년 4월 이후 8086부대가 가장 많은 힘을 쏟은 활동 중 하나가 부상장병 포로 교환 과정의 기록이었다. 그 작정명은 “Operation Little Switch”였다. 1953년 4월 6일, 포로송환에 관한 유엔 측과 공산 측의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지대의 관심과 활동을 우선적으로 이 주제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극동육군 군사과로부터 하달되었고, 이후 다른 모든 과제들은 “Operation Little Switch”의 기록화에 자리를 내주었다. 모든 장교들이 이 문제에 달려들었고, 실제 부상장병 포로 교환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문산리와 판문점, 부산 현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송환 관련 활동 패턴이 명료해짐에 따라 편찬 계획이 수립되었다.²²⁾ “UN사령부 전진기지와 문산리 임시사령부에서 활동과 준비”는 데일리 대령과 로켓트 소령, “언론 취재를 위한 준비와 공보 관련 활동”은 로켓트 소령, “미 8군과 1군단의 문산리 임시사령부를 위한 군수 및 여타 지원활동”은 로우 소령과 카인드 소위, “송환된 유엔 병력의 의료 수속과 수송”은 멀린스 소령과 위든 중위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후 이 과제들은 전체적으로 MHD-2, “UNC PW Repatriation(Little Switch)”로 분류되었다.

6월 말에는 “Operation Little Switch”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던 장교 중 1명만이 부대에 남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과제는 계속 8086부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집필자를 바꾸어가며 10월 말경 대체로 집필을 마쳤다. 원고는 4개장으로 구성되었고,

22)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Monthly Status Report”, No.4, prepared by MHD 8086th AU, 1953.5.1.

각 장의 제목은 각각 I. “Base Camp-Panmunjom Operations and Public Relations”, II. “The Medical Processing and Evacuation of Repatriated Prisoners”, III. “KCOMZ Operations”, IV. “Logistical Support”였다.²³⁾

1953년 9월 극동육군 군사과장은 새로운 임무를 지대에 부과했다. 그것은 전체 미 육군 한국전사의 일부 장이 될 군수와 인사관련 문제들이었다. MHD-23부터 MHD-32까지 10개의 일련번호가 붙은 각 과제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 문제”

MHD-23 “Helicopters in Korea”

MHD-24 “Transport of Supplies”

MHD-25 “Equipping the ROKA”

MHD-26 “Offshore Procurement”

“인사 문제”

MHD-27 “The Pipeline vs. Unit Rotation”

MHD-28 “Assignment and Reassignment”

MHD-29 “Casualties, Casualty Reporting”

MHD-30 “Maintenance of Troop Strength; Bodies and Spaces”

MHD-31 “Morale During Stalemate”

MHD-32 “Personnel Economy Measures”

23) 「연대기」 pp.23~26; 최종원고는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and Support Organizations(World War II and Thereafter), Eighth U.S. Army, Military History Section, Enemy Prisoner of War Records, 1951~53, Entry A1-224, Box 1661, 1662에 소장되어 있다.

이 과제들은 1953년 10월부터 8086부대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들은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중 일부가 미 육군 태평양방면군 군사실 편사문서철에 완성된 원고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완성된 과제들의 최종제목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²⁴⁾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소장 문서상자 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MHD-26,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Problems and Solutions, June 25, 1951-July 31, 1953”, 1954. 10(Box 76)

MHD-28, “Assignment & Reassignment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4. 7, Major Henry A. Jeffers Jr.(Box 67)

MHD-29, “Casualty Reporting July 51 - July 53”, 1954.4. 6, 1st Lt. David W. Hart(Box 67)

MHD-31, “Welfare and Morale Activities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12. 10, Lt. Col. Walter R. Padrick(Box 67)

MHD-32, “Personnel Economy Measures in Korea July 1951 to Jan 1954”, 1954.12.10, 1st Lt Thomas P. Barbera(Box 70)

군사지대가 한국에 부임한 이후 8086부대가 그 활동을 마감할 때까지 이들 부대가 작성한 한국전사 관련 각종 편사기록물을 열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는 8086부대가 작성한 “Digest of Historical Projects of Korean Conflicts”에 의거해서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를 ‘문서 제목, 작성자, 작전일시’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24) Record Group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표 4〉 군사지대의 한국전사 편사계획 목록²⁵⁾

AAI	Task Force BYORUM	Martin Blumenson	1951. 5. 17~19
AAI	Task Force GROWDON	Edward C. Williamson	1951. 3. 21~27
AAI	Tanks Above Kapyong	Martin Blumenson	1951. 4. 23~24
AAI	Battle of SOYANG	John Mewha	1951. 5. 16~18
AAI	Task Force GERHARDT	John Mewha	1951. 5. 24
AAI	Operation DOUGHNUT	William J. Fox	1951. 7. 1~4
MO	Tank Employment in Positional Warfare	Robert E. Whedon	1953. 1. 10~20
AA	KUM River	Martin Blumenson	1950. 7. 4~16
AA	Ambush of Battery C, 99 Field Artillery Battalion	Edward C. Williamson	1950. 10. 29~11. 2
AAI	Action at KUNU RI	Edward C. Williamson	1950. 11. 24~12. 1
AAI	Hill 128	Edward C. Williamson	1951. 4. 22
AAI	POBWON NI	Edward C. Williamson	1951. 4. 22~24
AAI	Artillery in Perimeter Defense	Martin Blumenson	1951. 4. 24
AAI	Task Force Lindy Lou	Martin Blumenson	1951. 5. 4~21
MO	I Corps Counterbattery Operations	Bevin R. Alexander	1951. 5. 30 ~ 1952. 6. 1
AAI	The Mechanical Flame Thrower in Action at YONGDAE	William J. Fox	1951. 8. 24
MO	Tactical Use of Chemical Smoke Generator Companies	William J. Fox	1950. 6. 19 ~ 9. 14
AAI	Destruction in Hamhung and Hungnam	John Mewha	1950. 11. 11~12. 19
AAI	Dismantling and Destruction of Han River Bridges	B. C. Mossman	1951. 1. 1~4
AAI	Withdrawal from Wonju	John Mewha	1951. 1. 6~7
SUA	Winterization of a Water Point	W. Briscoe, John Mewha	1951. 10. 9
SUA	Rehabilitation of Tidal Locks, INCHON, KOREA	Pierce W. Briscoe, B. C. Mossman	1951. 1. 4 ~ 11. 24
AAI	KILRA-CHON Bridge	John Mewha	1951. 4. 1~20
SUA	Recon Dailey	John Mewha	1951. 4. 2~8
AAI	Engineer Construction of Gen. L. K. LAUDE Bridge	Bevin R. Alexander	1950. 4. 14 ~ 1951. 6. 13
SUA	Building Concrete Culverts	Pierce W. Briscoe	1951. 6
AAI	Black Cat Number One	Pierce W. Briscoe	1951. 7. 3 ~ 8. 1
SUA	"Access Road"	John Mewha	1951. 7. 15 ~ 9. 8
AAI	Kum River Defense	Martin Blumenson	1950. 7. 16
AAI	Withdrawal from TAEJON	Martin Blumenson	1950. 7. 20
AAI	Action at Chinju	Martin Blumenson	1950. 7. 31
AAI	Action at Waegwan	Frod Mitchell	1950. 8. 9~10
CAR	Turkish UN Brigade Advisory Group		1950. 11. 20~12. 13
CN	Task Force KINGSTON	Martin Blumenson	1951. 11. 22~29
AAI	CHOSIN Reservoir	Martin Blumenson	1950. 11. 24~30
AAI	Chinese New Year's Offensive	Martin Blumenson	1951. 1. 3
AAI	Action at WONJU	Edward C. Williamson	1951. 1. 5~20
AAI	Hill 312	Martin Blumenson	1951. 1. 28~30
AAI	The 26th Infantry Scout Dog Platoon	A. S. Daley	1951. 1. ~ 1952. 11.
CN	A Battalion Raid on the T-Bone	Samuel M. Kind	1951. 1. ~ 1952. 11.
AAI	Twin Tunnels	John Mewha	1951. 1. 31 ~ 2. 1
AAI	Changbong NI to Hoengsong	John Mewha	1951. 2. 11~12
CN	Defense of Perimeter	Edward C. Williamson	1951. 2. 13~15
AAI	Task Force Crombez	Martin Blumenson	1951. 2. 14~15
AAI	Breaking the Hongchon Defense Line	Martin Blumenson	1951. 3. 13~20

25) "Digest of Historical Projects of Korean Conflicts", Booklet prepared by 8086 Army Unit, (AFFE) Military History Detachment, 1954.6.1.

AAI	Grenade Hill	Pierce W. Briscoe	1951. 3. 15
AAI	Operation TOMAHAWK	William T. Crawford Jr.	1951. 3. 22~29
AAI	Operation SWING	John Mewha	1951. 4. 4~13
AAI	HWACHON Dam	Martin Blumenson	1951. 4. 7~12
AAI	Hant'an River Crossing	Edward C. Williamson	1951. 4. 10~13
AAI	Combat Outpost	Pierce W. Briscoe	1951. 4. 19~22
AAI	Hill 902	Pierce W. Briscoe	1951. 4. 22~23
CN	Gloucestershire Battalion		1951. 4. 22~25
AAI	Action on Hill 628	Martin Blumenson	1951. 4. 25
AAI	Peaceful Valley	Bevin R. Alexander	1951. 5. 16~18
AAI	Action on the General Defense Line	Martin Blumenson	1951. 5. 17~18
AAI	Task Force HAZEL	Martin Blumenson	1951. 5. 24~25
AAI	Attack on Hill 451	Bevin R. Alexander	1951. 6. 2
AAI	Hill 1073	Martin Blumenson	1951. 6. 13~14
AAI	Hills 717 and 682 in the "Iron Triangle" Area	William J. Fox	1951. 6. 23~24
AAR	Objective QUEEN	Pierce Briscoe	1951. 6. 26
AAN	Bloody Ridge	Pierce W. Briscoe	1951. 8. 14~9.5
AAI	Successful Defense of Company Patrol Base	William J. Fox	1951. 8. 16~17
AAI	Battalion Raid	William J. Fox	1951. 8. 17~18
CN	Defense of a Patrol Base	William J. Fox	1951. 9. 5~6
CN	Patrol Base Overrun	William J. Fox	1951. 9. 5~7
CN	Heartbreak Ridge	Edward C. Williamson	1951. 9. 12~10.15
CN	Daylight Patrol North of MAGO RI	William J. Fox	1951. 9. 22
AAN	The Battle of Bloody Angle	Bevin R. Alexander	1951. 9. 29~10.6
AAN	Night Raiding Patrol	B. C. Mossman	1951. 12. 11~12
CN	Platoon Raiding Patrol	B. C. Mossman	1951. 12. 19~20
AAI	Christmas Patrol	B. C. Mossman	1951. 12. 25
AAI	Defense of OUTPOST EERIE	B. C. Mossman	1952. 3. 21~22
CN	Combat Patrol	Edgar Denton II	1952. 4. 3~4
CN	Night Defense of a Listening Post	Edgar Denton III	1952. 4. 8~9
CN	Night Combat Patrol by Company K, 15th Infantry	Robert H. Fechtman	1952. 4. 16~17
CN	Night Defense of Hill 200	Edgar Denton III	1952. 5. 26
CN	Action on Hill 117	Edgar Denton III	1952. 8. 13~15
AAI	Recapture of a ROKA Outpost	Robert E. Whedon	1952. 10. 12~13
CN	Chinese Counterattack on Hill Jane Russell	Joseph J. Comps	1952. 10. 16~20
AAI	A Rifle Company in Winter Defensive Positions,	Robert E. Whedon	1953. 1.
CN	Operation SMACK	Samuel M. Kind	1953. 1. 12~25
CN	An Enemy Assault on an Ambush Patrol	Joseph J. Comps	1953. 2. 12
AAI	Surprise Attack on a Combat Patrol	B. C. Mossman	1953. 2. 22~23
CN	An Enemy Raid on Outpost Harry	Joseph J. Comps	1953. 4. 3
AAI	Guerrilla Attack on Hospital Train	Fred Mitchell	1950. 8. 24
SUA	Innovations in the Medical and Dental Services	Martin Blumenson	1953. 4.
SUA	Medical Dispensary facilities in the CHUNCHON Area	Martin Blumenson	1951. 2.
SUA	Medical Company Under Attack	Martin Blumenson	1951. 5. 27

SUA	8076th MASH	Martin Blumenson	1951. 9.
SUA	Medical Planning and Support Attack on Hill 538		1952. 10.
SUA	The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 in Korea	William S. Mullins	1950. 7.~1953. 2.
SUA	The Regimental Medical Company in Korea	William S. Mullins	1951. 8.~1953. 4.
AAI	Helicopter Evacuation	John Mewha	1951. 1. 26~1951. 8. 22
SUA	Guerrilla Attack on Ordnance Company	Edward C. Williamson	1950. 9. 20
SUA	Evacuation of 44th Ordnance Depot Company from PYONGYANG	Edward C. Williamson	1950. 11. 30~12. 4
SUA	Field Expedients of an Ordnance Company	Edward C. Williamson	1951. 6.
SUA	Evacuation of Disabled Tank	Edward C. Williamson	1951. 10. 5
SUA	Movement of 44th Ordnance Depot Company from TOKSAN NI to UIJONGB	Edward C. Williamson U	1951. 11. 1~17
AAI	PYONGANG	Edward C. Williamson	1951. 11. 29 ~ 12. 6
SUA	Operation 8th Army QM Service Center Number 3	Bevin R. Alexander	1951. 5.~9.
SUA	Quartermaster Field Service Platoon in Action	Bevin R. Alexander	1951. 10.
AAI	VHF Relay on Hill 1157	Pierce W. Briscoe	1951. 5. 24~25
SUA	Construction of Pole Line Between Tempest and Jade,	Pierce W. Briscoe	1951. 9.
AAI	VHF & Radio Installations at Headquarters, 24th Infantry Division	Pierce W. Briscoe	1951. 9. 29~10. 7
SUA	Activities of 3d TMRS	B. C. Mossman	1951. 1.
MO	Operation of Highway Traffic Regulation Points	B. C. Mossman	1951. 2. 6~7. 1
MO	EUSAK Combat Propaganda Operations, 13 July 1950 - 1 September 1952	B. C. Mossman	1950. 7. 13 ~ 1952. 9. 1
AAI	Supply Battle of the SOYANG River	John Mewha	1951. 5. 10~6. 7
Narrative	Operation CLAM UP	Robert. H. Fechtman	1951. 2.
MO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mmunication Zone		1952. 7. ~ 11.
MO	Evacuation of Refugees and Civilians from Seoul	Henry A. Jeffers Jr	1950. 6. ~ 1951. 1.
CN	Inception and Growth of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Support Group	William J. Fox	1952. 7. ~ 1953. 2.
MO	Operation Little Switch	Wendell W. Lockett	1953. 3. ~ 1953. 4.
MO	UN Partisan Forces in the Korean Conflict	A. S. Daley, B. C. Mossman	1951~ 1952
MO	Construction of Libby and Teal Bridges	William R Farquar JR	1952. 10. ~ 1953. 7.

위 표에서 AAI는 사후증언(After Action Interviews), AAR은 사후 보고서(After Action Reports), CN은 전투사(Combat Narratives), MO는 연구논문(Monograph), SUA는 근무부대 활동(Service Units in Action), CAR은 전투활동보고(Combat Action Report), AAN은 사후서사(After Action Narrative)를 나타내는 약어다. CAR은 AAR과 같은 형식의 글이다. AAN은 서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CN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란 주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전투경험을 작전 중이나 사후에 기록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즉,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의 생산은 일차적으로 전투경험 기록의 생산과 보존에 그 목적이 있고, 군사지대의 기본적 임무는 이와 같이 해당 작전의 실제 진행정형을 기록으로 만들어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반면 전투사란 이러한 사후보고서, 사후증언 이외에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나 일일보고서(Daily Journal) 등 다른 기록들을 활용하여 해당 전투를 역사적 서사(narrative)의 형태로 서술한 것이다. 서사는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달리 작전계획, 작전활동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포함한다. 미 육군의 군사편찬 원칙에 따르면 전투사 서술 역시 충실한 사실적 기초에 입각해야 하지만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전투사는 그 형식이 다른 것이다. 근무부대 작전(SUA)은 전투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근무부대의 작전활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다.²⁶⁾

군사지대가 한국에 부임한 직후 활동의 중심은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 작성이었다. 또 1951년 8월 말부터 소부대 활동 연구를 시작했고, 미 8군 특별과제를 논문이나 역사서술의 형태로 작성했다. 또 1951년 12월 경부터 전투사를 집필했다. 그리고 8086부대로의 통합 이후 군사지대의 활동은 전투사(Combat Narrative) 집필 마무리와 연구논문(Monograph) 작성에 모아졌고, 특히 연구논문 작성이 강조되었다. 그 작업은 이제 미 8군의 특별과제가 아니라 육군부와 극동군사령부 차원의 한국전사 편사 계획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군사지대의 한국에서 활동 정형은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편사기록물에 그대로 나타난다.

〈표 4〉에 의거해 군사지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군사지대가 생산한 편사기록물 총 116건 가운데 사후증언과 사후보고서가 62건으로 가장 많은 수와 비중을 차지한다. 사후증언, 사후보고서의 작성과 수집은

26) RG 338, Entry A1-224, Box 1657, "Mission of Historical Detachments"

군사지대의 기본 임무였고, 군사지대는 이 작업에 가장 많은 활동기간을 투여하였다. 다음으로 전투사가 22건, 근무부대 작전이 21건으로 양자를 합하면 도합 43건이다. 건수와 비중으로 보면 사후보고서·사후증언 다음으로 중요한 셈이다. 사후증언·사후보고와 전투사 양자를 합하면 모두 105건인데, 군사지대의 활동이 주로 사후증언·사후보고서, 소부대 전투사와 근무부대 작전사의 작성에 치중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논문은 모두 10편이다. 연구논문은 편수는 가장 적지만 그 작업량이나 강도가 다른 형식의 편사기록물보다 작거나 낮은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들었던 MHD-2 “UNC PW Repatriation(Little Switch)”는 단일한 연구과제로 취급되었지만 사실은 총 4장의 원고로 이루어졌고, 군사지대 군사관들이 1953년 중반에 거의 6개월가량 작업한 것이다.

총 116건 가운데 사후증언·사후보고서와 소부대 전투사, 근무부대 작전사, 그리고 연구논문을 제한 나머지 1건은 군(Army) 차원의 작전을 서사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그 제목은 “Operation CLAM UP”이다. 이 작전은 1952년 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수행되었고, 중국군과 북한군을 다수 유인하여 매복으로 생포하기 위한 작전이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²⁷⁾ 어쨌든 이 작전은 유엔군사령부가 군 차원에서 기획했던 만큼 소부대 전투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고, 1952년 봄에 몇 개 지대가 이 작전사의 작성에 투입되었다. 116건을 병종별로 분류하면 기갑 7건, 포병 8건, 화학 2건, 공병 11건, 보병 57건, 의무대 9건, 보급 6건, 병참 2건, 통신 3건, 수송 2건, 심리전 1건, 군수 1건, 일건 7건으로 보병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주제 영역을 다루었고, 또 분석대상 역시 다양했다. 군사지대의 활동은 그야말로 6·25전쟁에서 미군 활동영역 전반을 포괄했다.

〈표 4〉는 8086부대가 활동을 종식하기 약 9개월 전의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표가 만들어진 뒤에도 몇 건의 보고서가 추가적으로 생산

27) Clint Munding, “CLAM-UP, Operation”, Spencer C. Tucker ed.,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Checkmark Books, 2002, p.151.

되었다. 위 표에 나타나지 않으나 편사 계획이 수립되었던 과제의 수는 모두 15과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번호 MHD-23부터 MHD-37까지가 그것에 해당한다. MHD-23부터 MHD-32까지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군수문제와 인사문제 관련 기획이었고, 그 가운데 보고서가 제출된 과제의 목록은 앞에서 제시한 대로다. 그 외에 MHD-33부터 MHD-37까지 과제명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 가운데 MHD 33, 35, 36, 37은 최종 보고서를 미국 국립문서관 문서집단 550, 편사문서철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⁸⁾ 이 목록 역시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작성자 (소장 문서상자 번호)’ 순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8086부대는 마침내 1955년 3월 18일 활동을 중단했다.²⁹⁾

MHD-33, “Indigenous Labor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9. 15 (Box 80)

MHD-34, “Utilization of Minority Groups”

MHD-35, “A Chronology of the Historical Detachments in Korea,” 1954. 6. 25 (Box 28)

MHD-36, “Real Estate Problems and Activities in Korea July 1951 - July 1953”, 1954. 8. 25 (Box 70)

MHD-37, “Salvage in Korea July 1951-Sep 1953”, Major Thomas A. Hotchkiss (Box 76)

28)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1945-1984, Military History Office,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Entry A1-1.

29) RG 338, Entry UD 37042, Box 398, “HQ, 8086th AU, Military History Detachment Historical Reports”

5. 맺음말

미 육군의 한국전사는 크게 1부 전쟁사, 2부 작전사, 3부 특별과제, 4부 소부대의 전투 활동, 5부 소부대의 기술지원 작전의 체계를 갖추었고, 그 가운데 3부 특별과제를 구성할 특수주제에 관한 연구논문 집필과 4·5부 소부대 활동 연구에 군사지대 군사관들이 관계했다. 하지만 한국전사 편찬과 관련해서 군사지대 활동의 중요성은 소속 군사관들의 특수주제 관련 논문 집필이나 소부대 활동 연구가 아니라 이들이 각종 자료의 생산과 수집, 정리에 종사함으로써 한국전사 편찬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꼽으라면 각종 정책 문서와 전문들 외에 극동군·유엔군사령부에서부터 미 8군, 군단, 사단 등 각 지휘·통제 단위가 생산한 지휘보고서, 전투 현장에서 직접 작전활동을 벌였던 각종 전술부대와 지원부대의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사후보고서와 사후증언은 전적으로 군사지대의 활동에 의해 생산, 수집되었고, 전선 차원에서 집필할 수 있는 특별과제들도 대부분 군사지대가 집필했다.

즉, 워싱턴의 군사감실이 한국전사 편찬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공식 ‘전쟁사’를 편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극동군·유엔군사령부 군사과와 미 8군사령부 군사과는 지휘보고서 생산을 통해서 전구(戰區) 차원의 전략과 지휘, 작전 통솔, 실제 작전수행 정형과 전황을 기록하고, 이에 입각해서 ‘작전사’ 편찬 작업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군사지대는 야전에서 수행된 각종 작전 활동을 기록하거나 그것들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나아가 그러한 기초 자료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비유하자면 한국전사 편찬의 골격을 제공한 것이 워싱턴의 군사감실이었고, 그것에 살을 붙인 것이 극동군·유엔군사령부 군사과와 극동육군사령부 군사과였다면 그러한 미 육군 차원의 한국전사 편찬에 혈액을 공급한 것이 다름 아닌 군사지대였다.

이 글은 미 육군의 한국전사 편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전혀 해명되지 않았던 군사지대의 조직과 활동을 새로 발굴하고 소개했다. 이 글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군사지대의 편성에서부터 종료에 이르는 조직 변천, 활동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동시에 미 육군 한국전사 편사 활동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를 해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 미군의 한국전사 편찬에 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위해서 향후 분석 과제를 몇 가지 제기하고 싶다.

먼저 군사지대가 생산한 각종 자료와 편사기록물들에 대한 해제와 정리, 비판 작업이 필요하다. 머리말에서 밝혔지만 군사지대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물론 군사지대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물들이 미국 국립문서관에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공간되었지만 아직 공간되지 않은 채 원고(Manuscript) 상태로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도 많다. 그 원고들은 6·25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6·25전쟁을 다층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 육군 한국전사 편사체계와 편사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워싱턴의 군사감실이 기획하고 출간한 각종 한국전사 관련 저술들과 군사지대 편찬 보고서의 관련성, 군사지대의 상위기구인 군사감실, 극동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군사실, 극동육군 군사과, 미 8군 군사과 등의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활동과 군사지대 활동의 관련성 등이 보다 깊이 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 육군 군사감실이 편찬한 한국전사 관련 저서들의 편찬 경위와 과정, 내용에 대한 분석, 사학사적 의미와 성격 등도 새롭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6·25전쟁, 미 육군 군사감실, 미 극동군 / 유엔군사령부, 미 육군 군사지대, 군사관, 사후증언, 사후보고서, 소부대 활동 연구, 전투사, 근무부대 활동 연구

<ABSTRACT>

Historians on the Frontline: The Activity of US Army Military History Detachment during the Korean War

Chung, Yong wook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newly discovered organization and projects of Military History Detachment(MHD), which had been to the fore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comprehend not only the formation and the completion of MHD's mission but also the transition and overall projects, which could not be clarified up to this date. Moreover the research explains one of the important links of the Korean War history project.

Eight MHDs were formed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October and November of 1950, which would be dispatched to Korean front. The MHDs arrived in South Korea between March and July 1951 via Tokyo, Japan. In early months of the war, the eight MHDs concentrated on writing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and later turned them into historical records on the basis of battle experiences. By December 1951, small unit activities, combat narratives, and monographs became another crucial task. These eight MHDs amalgamated into one in January 1953 and was named the 8086 army unit. By that time,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8086 unit was the writing research papers later to be part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had five parts: war history, history of operations, special tasks, combat narratives, small unit activities and operations of service units. Among those parts, military historians took part in the writing of monographs concerning special subjects of part three and research of part four and five. But the importance of MHD activities in regard to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is not that military

historians wrote thesis on special task or studied small unit but that they provided the foundation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by producing, collecting and arranging various data. From all sorts of policy document and statements to reports done by FEC/UNC, Eighth Army, corps, and divisions, finally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are the most important data of compilation of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US Army. Among those, after action interviews and after action reports were wholly produced and collected through MHD activities.

Key Words : The Korean War, Office of Center for Military History, FEC/UNC, Military Historian, Military History Detachment, After Action Report, After Action Interview, Small Unit Activity, Combat Narrative, Service Unit Activity

